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6호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유통업계
온·오프라인
고객잡기 나서
L1

신제품 개발
원료배합까지
AI로 식품 만든다
L2



이웃의 오늘부터 청년의 내일까지, 함께 걷는 '따뜻한 연대'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금융투자협회

누군가에게는 문 앞에 도착한 한 끼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된다. 누군가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인 돈이 처음으로 내일을 계획할 용기가 된다.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는 순간,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다.

기업의 가능성을 찾아 자금을 잇는 금융투자업계는 이웃의 삶에도 저마다의 손을 보태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손길을 한데 모으는 일을 해왔다. 한 복지시설과 맺은 인연을 22년째 지키고, 전국 단위 김장 나눔에는 여러 업권이 함께하고, 청년 재무상담에는 증권사의 전문 인력과 지역 지점이 힘을 보탠다. 협회가 회원사의 참여를 끌어내고 복지기관이 현장의 필요를 연결하면서 개별 회사의 기부나 봉사로는 닿기 어려운 곳까지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1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의 기부축제인 제16회 사랑의 김치페어에서 직접 담그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직원들.
2 금융투자협회 한사랑마을 봉사활동.
3 금융투자협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2000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전달했다.
4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경기 김포시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 집'에서 김장 봉사와 나들이 동행 활동 등을 진행했다.
/금융투자협회

◆청년의 이름으로 쌓는 첫 자산 지원하는 금투협

보호시설을 떠나 생활비와 주거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시작한 청년에게는 당장의 지출을 감당하면서 목돈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금투협이 지난해 시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청년이 일정 기간 자기 명의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참여 증권사와 초록우산이 함께 청년 명의의 ISA에 매달 30만원씩 3년간 후원한다. 한 사람에게 1080만원이 쌓이는 구조로, 현재 참여 중인 청년 139명에 대한 전체 지원 예정액은 약 15억원이다.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잡은 데에는 의미가 있다. 독립 초기에는 주거와 취업 등 큰 결정을 연이어 내려야 한다. 일정한 금액을 자기 이름으로 꾸준히 모을 수 있으면 당장 필요한 돈과 앞으로 쓸 돈을 나눠 생각할 여지가 생긴다. 협회는 참여 증권사와 협력기관을 통해 계좌 운용 상황을 살피고 금융교육과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금융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금투협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사업에 참여해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간 협의를 돕고 상담 지점을 지정하는 과정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월 16일부터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가 5개 도시의 12개 지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재무상담의 출발점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 보유 자산을 파악하고 앞으로 필요한 돈을 가늠해보는 데 있다. 계좌를 통해 돈을 모으는 경험에 자기 형편에 맞게 재무계획을 세우는 기회까지 더해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사회공헌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금융 이해력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일회성 NO…해마다 다시 찾는 이웃

금투협 임직원은 해마다 초에 봉사 일정을 받아든다. 어르신 배식과 도시락 배달, 제빵, 유기동물 보호 등 여러 활동 가운데 자신의 일정과 관심에 맞는 일을 골라 참여한다. '1인 1봉사 캠페인'이다. 협회가 참여할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면서 일손이 필요한 복지기관과 임직원이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만날 수 있게 했다.

여의도복지관에서는 매달 어르신 식사 배식과 청소를 돕는다.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어르신 도시락 배달은 올해로 18년째다. 지난 6월 24일에는 임직원들이 치료식 도시락을 배달하고 협회가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빵 나눔'에서는 임직원이 직접 빵을 만들고 협회가 회차마다 7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 김포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집과는 2005년 결연을 맺었다. 이후 임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모아 후원하고 현장을 찾아 봉사하면서 올해로 22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협회 임직원들이 소망의집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들과 김장을 담갔다. 후원금 600만원과 생필품도 전했다.

초록우산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한사랑마을에는 2012년부터 봉사와 후원을 이어왔다. 올해 6월 17일에는 협회 임직원 30명과 회원사 14곳의 임직원 25명 등 55명이 함께 시설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협회는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자립준비청년 3년간 30만원 후원
자산관리 돕고, 금융이해력 높여

도시락 배달, 사랑의 빵 나눔 실천
소망의집 22년째 후원 등 정기봉사
일회성 넘어 이웃 돌봄 빈틈 메워

임직원 기부에 200% 매칭 출연
기금 조성 통해 취약계층 두루 지원

86개사 모여 16년째 김장 이어와
전국 복지시설·이웃에 김치 나눠
실질적인 도움 찾아 상생 실천 앞장

이렇듯 매달 돌아오는 배식 일정과 해마다 다시 찾는 시설은 협회 봉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준다. 임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면 복지기관에는 필요한 일손이 보태지고, 협회가 마련한 후원금은 시설이 돌봄을 이어가는 데 쓰인다.

◆임직원이 십시일반…협회는 두 배 보태

금투협은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매칭그랜트로 임직원의 기부를 뒷받침한다. 임직원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하면 협회가 그 금액의 200%를 추가로 출연한다. 임직원이 1만원을 내면 협회가 2만원을 보태 모두 3만원이 쌓이는 방식이다. 조성한 기금은 복지시설 후원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한다. 임직원 개인의 기부를 협회의 꾸준한 후원으로 이어주는 구조다.

연말에는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의 학용품 지원에 2000만원을 배정했다. '사랑의 쌀 나눔'과 '사랑의 공부방' 사업에도 각각 1000만원을 배정해 추진한다. 쌀 나눔은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공부방 사업은 아동·청소년이 읽을 책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협회는 하남 벧엘나눔공동체에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연말 사회공헌 과제에는 지역아동센터 학용품 지원과 한국심장재단을 통한 심장병 수술 지원도 포함됐다.

현장 기관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협회는 임직원의 기부와 기관 후원을 모아 이를 뒷받침한다. 협회는 이런 활동과 회원사의 사례를 사회공헌백서로 정리해 업계에 공유하고 있다.

◆86곳이 모인 여의도…16년 이어온 업계 공동 나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인 금융투자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에 양념을 버무렸다. 금투협이 주관한 '제16회 사랑의 김치 페어'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부동산신탁사, 증권 유관기관 등 86곳에서 약 1050명이 참여했다. 회사별 기부에 대표와 직원들의 일손이 더해졌다.

올해 행사에서 마련한 김치는 8만kg으로 지난해보다 5000kg 늘었다. 기부금은 약 3억9000만원이다. 참여 인원과 기부금, 김치 물량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김치는 초록우산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11년 시작한 김치 페어가 16년째 이어진 데에는 매년 여러 회사의 참여를 모으는 협회와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김치를 전하는 복지기관의 협력이 있었다. 경기 김포의 한 생활시설에서 임직원과 시설 종사자가 함께 김장을 담그는 일과 여의도에서 80곳 넘는 회사·기관이 힘을 모으는 일은 규모가 다르다. 두 활동 모두 겨울을 앞둔 이웃의 식탁에 필요한 것을 제때 보내기 위해, 해마다 같은 계절에 다시 사람을 모은다는 공통점이 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김치 페어에서 "각 회사의 정성과 임직원 여러분의 손길이 모여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의 방법을 꾸준히 발굴·실천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해 그 결실을 이웃과 나누어 신뢰받는 금융투자업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JTBC, 올림픽 중계권 계약 해지…"사업 지속 어려워" /사진 뉴시스
▲가을철 산불 예방… 속리산 탐방로 13곳 출입 통제
▲프로야구 FA 22명 공시…원태인·구자욱 시장에 나온다
▲한국 펜싱 남녀 사브르 대표팀, 카이로 월드컵 단체전 동반 우승
▲AI부터 가야금·힙합까지…英 리즈서 '2026 한국의 날'
▲뮤지컬 '광화문연가', 6개 도시 투어…21일 부산 시작